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어학원 시설은 설명회 때부터 정말 기대하지 말라고 하셔서 기대를 버리고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지내기 편했습니다. 1달 동안 지내면 어학원 숙소가 내 집 같고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나 정말 좋은 시설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학원 주변에는 상점과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FB라는 교통수단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p>
수업	<p>수업은 1:1 수업과 그룹수업 두 가지 형태의 수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1:1수업과 그룹수업이 한 시간씩 교대로 있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두 수업 모두 50분씩 이루어지며 10분의 쉬는 시간 후 다시 수업이 시작되어 총 8시간 동안 수업을 하게 됩니다. 5시부터는 석식 및 자유시간이 이루어지며 자유 시간에는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 됩니다. 분반은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한 뒤 이루어지며 1~5등 같은 조, 6~10등 같은 조 이런 식으로 같은 레벨끼리 그룹이 이루어집니다. 과제는 딱히 없었고 강사님들도 처음에 지정된 강사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피스에게 가서 말씀드리고 바뀌어도 됩니다. 원어민 강사 분들과 계속 영어로 수업하고 대화하니까 확실히 영어가 친숙해 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p>
Activity	<p>마닐라투어, 안바야 코브, 수빅 투어, 요트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었으며 안바야코브는 리조트에 들어가서 뷔페식으로 밥을 먹어야하는데 뷔페 값이 좀 비쌌습니다. 이외에도 돌아올 때 추가로 받는 공항세나 이것저것 따로 드는 비용이 있어서 따로 빼놓는 것이 편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긴팔이나 긴바지를 별로 가져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학원이 굉장히 추우니 겹옷을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전	수빅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안전해서 소지품만 조심하면 괜찮았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는 들던 것보다 지내기에 편했고 벌이 좀 많이 들어오고 개미가 많아서 벌레 퇴치제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점호시간도 정해져있는데 점호시간이 딱히 부족하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기타() 학교식당에서 주로 점심을 먹었고 저녁에 나가서 먹는 식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식당이 굉장히 밥이 맛있게 나와서 나가서 사먹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	숙소가 어학원 내에 있어서 통학을 할 필요는 없었고 단지 교통이 조금 불편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FB라는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데 저녁시간에 사람이 많은 시간에 움직이면 몇 대를 보내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택시는 미터 당이 아니고 거리로 값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400,000	달러로 환전 후 페소로 환전

합계	1,03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걸옷을 꼭 가져오는 것을 추천하며, 40만원을 환전하면 제가 환전했을 당시 기준 370달러가 되는데 넉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쇼핑도 하고 먹으러 다니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쇼핑을 많이 할 것 같다면 조금 더 환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아픈 학생들이 많았고 감기 같은 것들이 쉽게 낫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약을 종류별로 가지고 오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1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는데 SLC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후회하지 않을 짧은 1달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다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분위기라 걱정하지 않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 온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다 친해지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앞으로 계속 영어를 안쓴다면 까먹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 꾸준히 영어회화를 공부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수빅베이</p>	<p>코코라임에서 판매하는 파인애플 밥</p>
	
<p>SLC 1층 외부풍경</p>	<p>올롱가포 바</p>



지프니 내부



안바야 코브 뷔페